

십수 년 전의 일이다. 텔레비전 대담 프로그램에 젊은 여성 변호사가 나왔다.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그 변호사가 불우한 환경에서도 성공한 사람이라며 추켜세웠다.

그러자 당사자인 변호사는 우려를 표했다. 자신의 경우가 개전에서 '옹' 난 모범 사례로 회자되면서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면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 개전에 여전히 살고 있는 다른 불우한 이웃은 소외되거나 말거나, 한술 더 떠서 같은 환경에서도 노력만 하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뭐냐 하는 비판의 시각이 더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이었다.

요 며칠 미국 '수퍼볼 영웅'이라는 하인스 워드의 귀국으로 인론이 떠들썩하다. 온갖 행사가 벌어지고 명예 시민장을 주기도 하고 야단법석이 따로 없다. 혼혈인이라는 차별 때문에 타국에 가서 모진 고생하며 살다가 성공해서 돌아온 그에게 베푸는 환영으로서의 부족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소나기처럼 퍼부어대는 관심과 찬사를 보면서 십수 년 전 젊은 여성 변호사의 텔레비전 대담이 머릿속에 떠오르며 민망하고 송구스럽기까지 하다.

"한국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생각 안 하고 살아온 30년이었어. 내가 워드 데리고 한국에 왔었



불자 세상보기

권경희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

혈통주의와 빈자일등

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놈 거지밖에 안 됐겠지? 여기서 누가 파출부라도 시켜줬을까?"

하인스 워드를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히 키워낸 어머니 김영희 씨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제 와서 우리 워드가 유명해지니 관심을 참 많이 가져 준다. 부답스럽다."

바로 이것이었다. 하인스 워드에게 쏟아지는 찬사가 민망하고 송구스런 이유다. 그가 힘들게 자랄 때, 그가 성공을 위해 분투할 때 한국인의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민망함이 덜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성공한 그를 환영하기에는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동안 너무도 무관심했다.

연인과 방송의 호들갑을 보면서 하인스 워드의 성공이 한국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혼혈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는지 불안한 마음이다.

혼혈인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한다는 원론적인 주장부터, 우리사회가 늘 자랑스러워하던 혈통주의에 대한 공격은 물론, 급기야 혼혈인의 군

입대 허용까지 말이 무성하지만 정작 하인스 워드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정말 우리사회가 얼마나 변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하인스 워드의 귀국 환영 세례를 보면서 여성 변호사의 우려가 재현되고 있지는 않나 걱정스럽다. 성공한 '옹'에게 화려한 조명을 비추는 데만 급급하고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불우한 혼혈인은 한쪽으로 제쳐두고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다.

하인스 워드의 성공을 계기로 우리도 이제 우리 민족단 감싸 들고 사는 시각에서 벗어나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려 함께 살아가게 되었으면 좋겠다.

혼혈인에 대한 편견을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도 버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마음을 길렀으면 좋겠다. 그래야 '한국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던' 하인스 워드 모자가 아픈 세월을 이겨내 이룩한 성공이 더욱 의미 있게 될 것이다.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온다. 부처님께서는 화려하게 치장한 등불보다 가난한 노파의 작은 등불에 담긴 정성을 보셨다. 빈자일등(貧者一燈)을 소중히 여겼던 부처님의 그 자상한 마음이 그리운 오늘이다.



불자의 눈

천태종 새 수장으로 정산 스님이 취임했다. 26년간 종무원장의 수장직을 맡아 천태종을 키워 온 은덕 스님의 뒤를 이어 천태종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이룩해야 할 큰 짐이 정산스님의 어깨에 지워진 것이다. 오랜 기간 수장직을 맡아 오던 분이 자신의 세력과 공로를 방패로 하지 않고 새로운 계기를 열어주면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장기간 뒤에 오는 교체에 어려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진통을 겪지 않으면서 새로운 수장을 선출했다.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큰 맥을 이어오는 거대 종단으로서 가장 큰 교세를 지니고 부동의 불교 제 1종단의 위치를 지키는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그 큰 교세와 함께 긴 역사를 통해 쌓여온 많은 문제점도 함께 지니고 있기에 조계종의 변화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곱볼 수밖에 없다. 천태종과 같은 새로운 종단은 이에 비해 새로운

천태종의 '새모습' 기대

조직과 실행방식을 쉽게 도입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이 그 급속한 성장의 힘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고 하겠다.

반면 비교적 짧은 기간의 성장에는 그 이념의 깊이와 사회적 역할의 측면에 피쳐 못할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부정하기 힘든 일이다. 외적인 성장과 위상의 상승에는 그에 비례하여 끊임없는 이념의 심화와 사회적 역할의 증대가 필요하다. 천태종이 사회적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채 정체되고 있다는 내외의 지적은 한편으로는 천태종의 상승권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에 걸맞는 이념의 심화와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겠다.

관음정진을 중점적으로 하는 일상의 수행법과 재가신도들이 중심이 되는 투명한 사찰운영, 불교대학 설립을 통한 인재 양성 등, 천태종은 건강한 종단을 이루기 위한 기본을 착실히 갖추고 있다. 이제 개인적 기복과 사회적 회합까지가 조화로운 이념아래 통일적으로 체계화되고, 그것이 합리적이면서도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힘있게 추진되어 한국불교에 천태종이 있다는 것을 크게 외쳐야 할 때이다. 새로운 천태종의 수장 정산 스님이, 그 동안 쌓여 온 천태종의 자력을 새로운 비전으로 이끌어, 이시대의 진정한 대승종단 천태종으로 우뚝 세우기를 기대한다.

성대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죄'

어떤 사람이 심해 가마솥의 밥을 중생에게 보시하겠다고 하자,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소뿔을 찌는 잠깐 동안이나마 모든 중생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을 뒤야 잊었다면, 그 먼저 사람의 보시 공덕은 뒷사람의 억만 번의 일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잡아함 부경>

지난 3월 9일 밤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눈치를 살피던 한 노인이 옷 속에 뭔가를 숨겼다. 그는 노숙자였다. 결국 이 노숙자는 경찰에 넘겨졌고,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그가 훔친 것은 2500원짜리 평종 권 하나였다.

그는 전과 11범인데다, 출소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유도 출소한 지 3년 안에 죄를 저지르면 형이 2배로 가중된다는 형법상의 '누범조항'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11차례 범죄에 19년 복역. 이 사람이 그동안 출치러했던 것은 7만 원어치의 신문공치와 1년째 주인 없이 매어있던 종고 자전거, 그리고 1만5000원짜리 손수레 등이었다.

이 뉴스를 접한 다음날 출근길 지하철 계단에서 어린 자식을 끌어안은 채 잠들어 있는 한 여성 노숙자를 보았다. 아이는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다.

무능력한 것은 이 사회에서는 '죄'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왜 그 잘 난 사람처럼 살지 못하느냐"는 환난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필자가 그 노인이었더라면 더 비싼 것을 골랐을 것이다. 필자가 그 여성 노숙자라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아이를 먹이고 입혔을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돌을 던진다면 기꺼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몇 십억씩 횡령하고도 멀쩡한 기업이나 정치인, 그리고 사람보다는 법이 위인 고매(?)한 사람들이 던지는 돌은 사양하겠다. 그런 돌에 맞으면 너무도 억울하지 않겠는가. ■한명우(우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이것 참! 어이없다! 내 아들 입에서 교회 가겠다고 하는 말이 나오다니...

교회 장로인 고1때 담임선생님을 2학년이 돼서 또 만난 것이다. 어찌된 일인지 2학년이 돼서는 일요일에 친구를 만날 수 없게 된 것 같다. 연유를 물으니 반 아이들 34명중에 10명이 담임선생님이 장로로 있다는 ○○교회를 나가는 것이다.

교회를 왜가려고 하느냐 물으니 "하느님을 믿으려는 게 아니고 친구들과 어울리려고 해요. 친구들이 다 거기 있어요."

난감한 일이 벌어졌다. 오늘 아침 담임선생님이 직접 집 앞에 오셔서 아이들을 픽업해 가셨다. (중략) 가기 전 아들에게 내가 한 일은 겨우, "한 번 교회가고 한번은 집에 가라! 그리고 어릴 거든 보시는 해야 하니 현금 봉투 가져가고..." (중략) 소신을 펴지 못 한 내가 초라해짐과 동시에 부끄럽기도 하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 청소년들의 놀이공간이 너무 부족하다. (중략) 아들에게 "친구들 다 데리고 집에 와서 놀아!" 하고 말은 했지만 그 에너지 넘치는 장정들 10명을 우리법당 어디에 얹혀 놓을 것인가? (후략) ■숙상한 혜향성 합장

최근 금강사 은평법당 신도의 글 '아들이 교회간다고...'가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붓다뉴스(buddhanews.com)'에 실린 혜향성 보살의 글과 누리꾼들의 의견을 정리했다.

절에도 놀이시설 많이 갖춰야

저도 혜향성님 글에 공감 또 공감 합니다. 저에게도 5살, 7살 두 아이들 있어요. 생활불교를 실천하기 위해 1주일에 1번 절에 놀러(?) 가곤 해서 그런지, 애들이 절에 가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가끔 다른 절에 가면 아이들이 경내에서 웃으면서 혹은 떠들면서 뛰어다니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눈치가 보이곤 해요. 어쩔 땐 애들 때까지 절에 가지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보면 애들이 절에 가는 걸 싫어하거나 다른 종교를 택할 지도 모르겠다 싶어 은근히 걱정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찰을 자기 공간처럼 여기고 편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으면 좋겠어요. 어느 성당처럼 법당은 아니더라도 놀이터나 놀이방 시설이 있었으면 하기도 하고요. ■아기맘

타종교 이해시키는 교육 필요

저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집에서 불교를 생활화하는 생활 속 불교를 하자는 말

이지요. 살면서 하나씩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아니라 어디를 가셔도 불교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배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진리가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자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일제 온갖 곳이 불교 아닌 곳이 없고 불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만 불교만이 바다와 같아 온갖 진리를 다 포함하고 있음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어디에든 진리는 있고 타종교와도 화합할 수 있으려면 그들의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가다보면 말만 다르지 이것은 불교 가운데 있는 것이라니 것을 알게 됩니다. ■아이빠

이대로는 '미래'가 없다

지난 토요일 학생들 76명을 데리고 서울 상문동 공생선원에서 법회를 했다. 매년 학기초 불교학생반아이들을 모집해 두어 달에 한번씩 사찰에 법회를 보러 가는데 스님과 보살님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학생들이 매년 선원에 즐겨온 마음으로 간다.

아이들은 조그마한 것에도 감동하게 마련이다. 년 초에 각 학급(남자고등학교) 종교를 조사하면 35명중 20명 이상이 기독교이고 천주교가 6명 불교는 2명 정도다. 심각한 실정이다. 지금 청소년들을 포교를 하지 않으면 먼 훗날 불교를 외국사람들에게 배울지 모른다. ■관심

'연대' 민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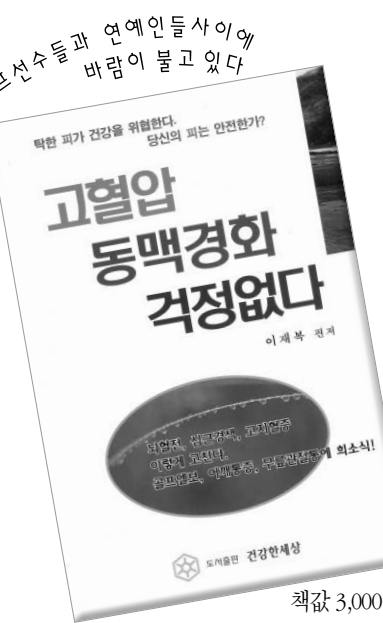
심민섭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질환!! 호주,북한 임상 보고서

북한의 조선중앙TV는 2005년 11월 14일자로 "반지와 팔찌만 차면 기적처럼 혈액이 정화되는 휴대용 혈액정화기"를 과학영화로 소개했다. 동맥경화, 심장질환, 혈전등 혈관 계통 질병치료를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햇빛을 쬐어주면 혈액 속에 불순물을 걸러내는 이반지, 팔찌는 사향보다도 효과가 더 좋다는 내용이다.

혈액점도도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등이 정상화된 수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화면은 2005년 11월 22일 "MBC통일전망대"를 통해 방영됐다.



책값 3,000원

북한의 김영남박사가 발명한 혈액정화기! 태양빛을 받는 순간 피가 맑아지고 힘이 생기는 이 기술을 북한에서는 "빛삼" 즉 빛의 산삼이라고 부른다.

심, 혈관질환에 98.8%의 치료효과(조선중앙통신보도 2003.6.13)

언론보도

- MBC TV 2005. 11. 22(통일전망대)
내일신문 2005. 12. 5
MBN TV 2006. 2. 18
메트로 2005. 11. 15
문화일보 2005. 10. 15
전기신문 2005. 11. 3
스포츠칸 2005. 10. 2
연예인뉴스 2005. 11. 7
스포츠서울 2006. 1. 6
시사뉴스 2006. 2. 16

북한에서는 이 기술을 60년대 석회석에서 섬유를 뽑아내는 비날론 생산기술에 비견될 만한 세계적 발명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지와 팔찌형태로 제작된 이 "혈액정화기"는 북한의 인민병원 회복치료과장 김영남박사가 18년동안 1만여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해 98.8%의 치료효과를 얻고 북한당국의 발명특허를 획득했다.

도서출판 건강한세상 1544-2181 ■책구입방법: 다음 계좌로 책값 3,000원을 입금하신 후 전화로 주소, 성명을 알려주시면 곧바로 책을 우송해드립니다. (농협 072-12-288028 예금주: 주본옥)